

구름은 천년을 흐른다 - 청자 속 구름무늬

김희정 | 303호 청자실 | 18:00~18:30

우리 역사 속에서 구름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단군신화에는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풍백(바람), 우사(비), 운사’(구름)’를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는 농경사회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혹독한 자연환경에 대한 경외의 마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분벽화에는 ‘화염문火炎文’ 혹은 ‘서운문瑞雲文’이 장식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공예품에는 학 혹은 봉황, 용무늬와 함께 구름을 쓰곤 하였습니다. 고려 말 문신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6)의 시 ‘부벽루浮碧樓’에는 “구름은 천년을 흐른다”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녹아들어 다양한 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년의 색을 간직한 고려청자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네귀 항아리’



그림 1.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네귀 항아리, 고려, 높이 23.8cm, 본관1984

천년의 색을 간직한 고려청자 속에도 고려인의 마음을 담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명품이 청자의 푸른빛을 하늘 삼아 노니는 학과 그 옆에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구름이 장식된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네귀 항아리’입니다. 색과 무늬를 보면 이 항아리는 12세기 최전성기 고려청자의 비색을 품고 있으며, 다양한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사방으로 마치 영지몽치 같은 구름이 바람에 몰려다니듯 구불구불한 음각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몸체에 상감한 학은 총 4마리가 구름 사이를 노닐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학, 그에 화답하듯 아래를 바라보는 학, 옆을 나는 학 등 어느 하나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 학의 부리와 눈, 날리는 머리 깃과 꼬리 깃털, 다리를 흑상감으로 장식하여 생동감

을 더합니다. 그런데 학 사이사이 상감된 구름무늬는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영지버섯 같은 구름이 ‘之’자로 쌓여 있는 듯하며 꼬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길게 내려와 갈필로 그려낸 회화작품 같습니다.

고려청자 속 구름무늬의 장식 기법과 모양

고려청자 속 구름무늬는 음각, 양각, 백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었지만 상감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구름의 모양은 구름의 머리 모양에 따라 영지형靈芝形, 적운형積雲形, 우점형雨點形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지형 구름은 영지버섯을 닮았습니다. 또한 구름 꼬리가 구불구불하고 긴 점이 특징입니다. 적운형 구름은 뭉게구름이 변형된 모양으로 구름 머리가 작고 꼬리가 짧습니다. 영지형 구름이 단순해진 모양입니다. 우점형 구름은 점점으로 흩어진 구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프링처럼 꼬이거나 비가 내리듯 짧은 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 2 영지형 구름무늬(본관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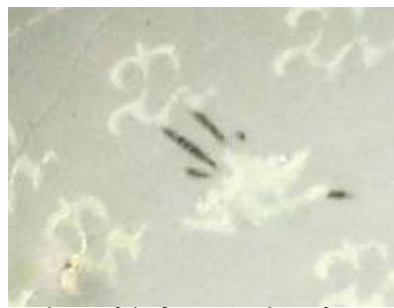


그림 3. 적운형 구름무늬(동원1158)



그림 4. 우점형 구름무늬(신수14472)

고려청자 속 구름무늬의 변화

고려청자 속 구름무늬는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에는 구름과 학이 매우 사실적이며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름무늬는 영지형으로 머리가 3~5(삼두운, 오두운)개이며, 꼬리가 구불구불하고 길게 뻗어 상서로운 분위기를 냅니다. 춤추는 학과 함께 도교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대체로 12~13세기 상감청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기에는 1기보다 구름 머리가 작아지면서 형태를 단순하게 하고 주로 적운형 구름무늬를 장식합니다. 주 무늬인 학 혹은 봉황보다 구름의 수가 많아지며 도장을 찍어 장식하기도 합니다. 구름무늬가 청자 전체를 빼곡히 채우면서 최절정기 상감청자 장식을 보여줍니다. 3기인 고려 말에 이르면 그릇의 형태가 날렵함을 잃고 둔탁해지듯 무늬도 도장을 찍어 반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더 단순해진 적운형과 완전히 변형된 우점형 구름무늬가 장식되고, 학 혹은 봉황무늬도 단순하게 변화합니다.



제56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1월 29일)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이정은 | 306호 인도·동남아시아실 | 18:00~18:30

불상은 기원후 1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대승 불교가 흥기하면서 붓다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발달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불상의 출현을 가져왔던 것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후 불교 미술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불상의 탄생은 인도의 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한 곳은 델리의 남쪽 야무나 강 유역에 위치한 마투라였고, 다른 한 곳은 고대 인도의 서북단, 지금의 파키스탄 북쪽과 아프가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간다라였다. 불상의 탄생에 있어서 마투라가 먼저였는가, 간다라가 먼저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학자들간의 논쟁을 있어 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투라의 불교 미술이 고대 인도 미술의 기초 위에서 등장한 반면 간다라 미술은 거의 전적으로 외래 미술, 특히 서양 고대후기 미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도 서북쪽의 간다라에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래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신관神觀과 신상, 미술양식도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서양 고전 미술의 신상과 흡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인도 본토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래 마우리아 제국의 도읍이었던 파탈리푸트라를 중심으로 인도 재래의 풍요신인 약샤와 약시상이 만들어졌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갠지스 강의 상류, 그 지류인 야무나 강 유역에 위치한 마투라에서는 간다라 지역의 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이 창안되었다. 초기 인도 불상에는 간다라 유형 및 마투라 유형과 더불어 제3의 유형이 존재하였다. 바로 안드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드라는 인도 동남부의 크리슈나 강 유역을 말한다. 이 일대도 교역로상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발달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이 있으나 대표적인 곳은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콘다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대부분 입상인데, 간다라나 마투라의 불상과는 다른 형식이다. 머리에는 작고 나지막한 육계가 솟아 있고 나발이 덮여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대의를 입고 있다. 대의가 발목 부분에서 곡선으로 말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끝을 왼손으로 잡고 있다. 이 특징적인 유형은 스리랑카에 그대로 수용되어 약 천 년 동안 이어졌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드라의 불교미술은 나가르주나콘다의 불사佛事を 후원한 익슈바쿠 왕조가 4세기에 멸망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기원후 320년 파탈리푸트라에는 새로운 왕조가 열렸다. 갠지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등

장한 강성한 제국인 굽타 왕조(320~550)는 궁정과 큰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문학과 음악, 미술이 모두 번성했는데, 특히 미술은 그때까지 전개되어 온 발전이 절정기를 맞아 고전적인 모델로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파급되었다.

굽타 왕조는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당시 종교 신상은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를 반영하듯 난숙하고 세련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곳은 마투라와 사르나트, 아잔타이다. 마투라는 기원후 3세기 후반을 고비로 100여 년간 침체기를 겪고 4세기 후반부터 다시 발전을 지속하여 5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았다. 쿠산대에 형성된 토대 위에 그동안 축적된 기술적 역량이 정점에 이르러 표현이 더욱 정교해지고 조각도 정세하며 모든 부분이 치밀한 비례에 따라 구성되었다. 성스러운 상은 완벽한 비례를 가져야 한다는 인도인들의 조형관을 반영하여 붓다의 초월적 성격이 한껏 강조되었다. 마투라의 불교 조각은 5세기 중엽을 정점으로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완성된 굽타 양식은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뒤이어 전성기를 맞은 사르나트의 불교조각은 마투라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도 마투라 불상을 연상시키는 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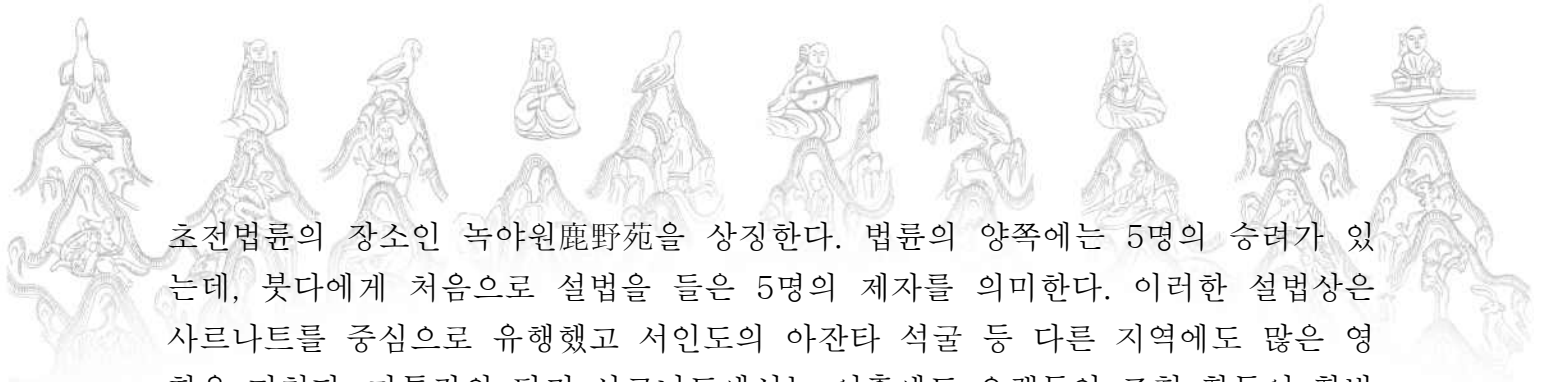
그림1. 입상(마투라, 5세기 중엽)

힌두교도들의 최고 성지인 바라나시에 인접한 사르나트는 붓다가 첫 설법을 펼 곳이다. 굽타시대 이전 사르나트가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하였다. 사르나트에서 만들어진 초기 불상은 쿠산시대 마투라의 초기 보살상의 서투른 모작들에 불과하다가, 5세기에 들어서서 마투라의 불교조각 양식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창출하였다. 사르나트 불상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470년대에 이룩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걸작인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은 인도 불교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이다. 붓다는 방형의 대좌에 앉아 설법인의 손갓춤을 하고 있다.



그림2. 초전법륜상(사르나트, 5세기 말)

대좌의 앞면에는 수레바퀴가 놓여 있고 그 좌우에 사슴이 두 마리 있다. 수레바퀴는 전법륜(轉法輪)을, 사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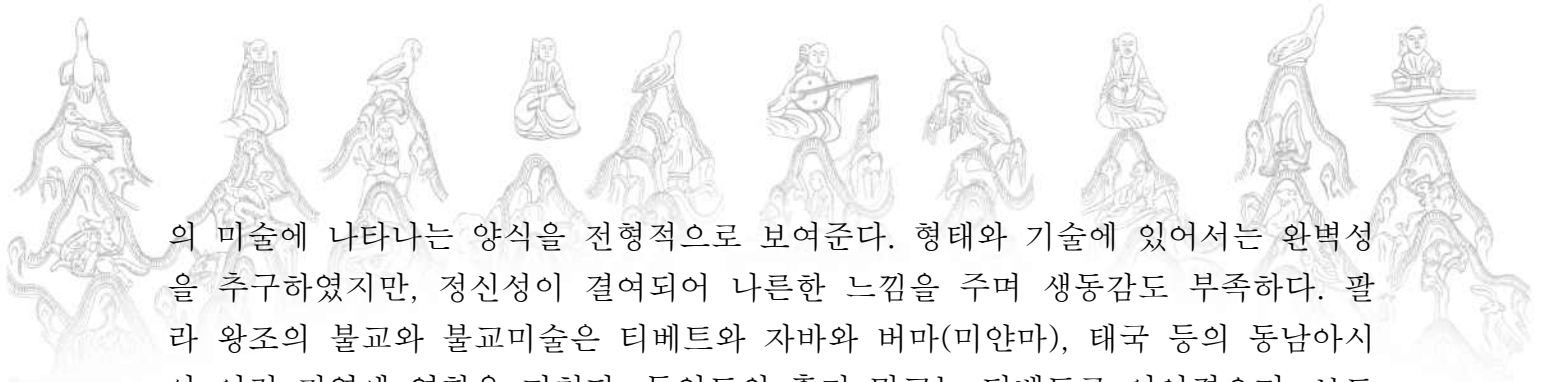


초전법륜의 장소인 녹야원鹿野苑을 상징한다. 법륜의 양쪽에는 5명의 승려가 있는데, 붓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들은 5명의 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법상은 사르나트를 중심으로 유행했고 서인도의 아잔타 석굴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마투라와 달리 사르나트에서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조형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또한 사르나트의 불상 양식은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시대 불상, 태국의 드바라바티시대 불상, 캄보디아의 전前-앙코르기 불상 등 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형성에 기여했고, 부분적으로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상이 만들어지던 470년대에 굽타 왕조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국은 곧 와해되었으나 왕조의 명맥은 550년경까지 유지되었다. 미술사적으로도 대략 이 시기까지를 굽타시대로 본다. 이 이후 800년경까지를 포스트-굽타기라 부른다. 굽타시대 이래 점차 흥기한 밀교는 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에 따라 불교미술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밀교 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도의 밀교는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발전하였다. 4~6세기에 성립된 초기 밀교는 중심적인 붓다가 석가모니였고, 신앙행위는 다양하게 변화된 형상의 관음보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굽타시대의 마투라, 사르나트, 아잔타, 칸헤리, 아우랑가바드 석굴 등지의 불교미술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중기 밀교에서는 중심적인 붓다로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 Mahāvairocana, 대일여래大日如來)가 등장하고 밀교적 신관을 도형으로 표현한 만달라를 수행에 사용했다. 만달라에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네 방위마다 붓다를 중심에서 외곽으로 전개되는 도형의 각 구역에는 8대보살과 타라 등 다양한 계위의 보살들과 신들이 자리 잡았다. 중기 밀교미술은 엘로라 석굴과 동인도의 오릿사, 갠지스 강 유역의 보드가야와 날란다 등지에 상당수가 전한다. 8세기에 성립된 후기 밀교는 탄트라tantra 불교라고도 불린다. 이 단계의 밀교는 힌두교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사크티śakti(여성적인 에너지)와 그것을 형상화한 여신 숭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불교의 근간인 반야般若와 방편方便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관념을 여성과 남성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적 결합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실제로 성적 행법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후기 밀교에서는 중생들의 무명無明을 깨뜨리는 분노한 모습의 신들이 등장하고, 대극의 합일을 상징하는 남녀 교합 자세의 상도 만들어졌다. 후기 밀교는 동인도 지역에서 티베트로 건너가 흥성하였다.

굽타시대 이후 대부분의 왕조들은 힌두교를 믿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점점 세력이 위축되었다. 신관이나 의례에 있어서 힌두교에 동화되는 현상도 뚜렷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미술은 팔라 왕조의 동인도 지방에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었다. 750년경 벵골과 비하르 지방을 거점으로 창시된 팔라 왕조의 미술은 고전기 이후



의 미술에 나타나는 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형태와 기술에 있어서는 완벽성을 추구하였지만, 정신성이 결여되어 나른한 느낌을 주며 생동감도 부족하다. 팔라 왕조의 불교와 불교미술은 티베트와 자바와 버마(미얀마),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동인도의 후기 밀교는 티베트로 이어졌으며, 보드가야의 불당을 모방한 건물은 버마의 파간과 태국의 치앙마이, 네팔의 카트만두에도 세워졌다. 벵골과 비하르는 인도에서 늦게까지 불교가 남아 있던 곳이었으나, 이곳에서도 11세기 이후 세나 왕조시대에 힌두교가 발흥하면서 불교가 크게 위축되었고, 1194년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으로 인도 각지의 불교 사원과 불교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제56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1월 29일)

고조선과 한반도 초기 금속문화

한 수 | 103호 고조선실 | 19:00~19:30

고조선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고학적 표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요령식동검문화와 한국식동검문화이다. 이 한국식동검문화는 중국 요령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요령식동검문화의 한반도 파급으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소위 북방지역北方地域의 청동기문화 및 중국청동기문화 요소도 받아들이면서 한국청동기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요령식동검문화 단계의 문화내용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보여, 청동기에 새롭게 의기류가 등장하고 무기류·공구류에도 다양한 요소가 가미된다.

기원전 5~3세기의 초기철기시대유적에서 발견된 청동유물 중에는 동검, 동모, 동과, 동촉 등의 무기류가 가장 많으며, 무기 중에서도 동검이 가장 많다. 이렇게 청동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동검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한국식동검문화로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동검은 세형동검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직선화된 검날은 동모, 동과등에도 함께 나타나며 한국식 청동무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동과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직선무늬는 의기화된 후기 청동무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의 청동공구로는 동부, 동착, 동사, 동추 등이 있다. 요령식동검문화 단계의 공구류 보다는 훨씬 다양해지고 수량도 많아졌다.

한국식동검문화의 높은 주조기술과 의장표현을 보여주는 것은 의기라고 하는 제의祭儀에 사용된 기물器物들이다. 특히 한국식동검문화기에는 앞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동의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전기에는 방패형동기, 검과형동기, 견갑형동기, 나팔형동기, 원개형동기, 원형유문동기 등의 의기가 사용되었으며, 후기에는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 간두령 등의 방울로 된 의기들이 사용되었으며, 동탁은 전기간동안 사용되었다. 청동거울인 다뉴경도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장신구가 아닌 제사장이 사용하던 의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식동검문화기 전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전기에는 거친무늬를 가진 조문경이, 후기에는 고운무늬를 가진 정문경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불화승 혜식의 영산회상도

정명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일생동안 불보살을 그림으로써 부처의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택한 화승畵僧은 사찰에 소속되어 불화를 그리고 제자를 양성해 자신의 화풍을 전수함으로써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해인사에서 활동했던 승려 화가 혜식이 그린 영산회상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인 한 줄기 빛으로 여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선정에 잠겼던 석가모니불은 오른 손을 내려 땅을 가리킵니다. 불단 앞에는 지혜와 실천행을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가르침의 내용이 담긴 경전과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부처의 제자 중 수행을 가장 잘 했다는 노승 가섭존자와 젊은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 역시 여래의 좌, 우측에서 있습니다.

정면을 직시하는 두 보살도 눈에 띕니다. 하얀 천의를 입은 관음보살은 손에는 청정한 물을 담은 정병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작은 여래가 모셔져 있습니다. 관음보살과 짝을 이루는 이는 세지보살입니다. 이들은 중생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구제하리라는 무한한 신뢰의 눈빛을 보여줍니다. 나한은 개성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미혹함을 버리고 마음에 자유를 얻은 자들로, 진리를 본 사람의 강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신화에서부터 존재하던 가루라, 건달바 등 팔부중은 불교에서 사천왕이 거느리는 권속 중 하나로 지위를 부여받고 설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인도 영취산에서 열렸던 석가모니불의 설법모임은 이처럼 장대한 광경으로 도해되었습니다. 당시의 설법을 기록한 것이 『법화경』이며, 영취산에서의 설법모임을 도해한 불화를 영산회상도라고 합니다. 그림의 상단에는 상의를 벗고 왼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탄생佛誕生佛이 표현되었습니다. 인도 마가다국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은 후 하늘을 가리키며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며 다시는 윤회하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 여래가 되리라는 예언을 보였습니다. 탄생불과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생멸生滅을 보인 석가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나타난 것일 뿐, 진정한 여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영취산에서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법화경』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단부에는 금 글씨로 그림을 제작한 일시와 화사, 불화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와 시주인의 명단을 적어 놓았습니다. 수화승은 혜식慧式이며, 위순偉順, 성청性淸 등 총 7명의 승려가 그렸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불상을 만든 이이자 공장工匠의 신, 비수갈마천에 비유되었습니다. 현실에 재현한 영산회상의 장엄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강하는 천인과 많은 설법 청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금 쟁반과 은기에 정성스레 담긴 석류, 가지, 복숭아 등 과실수들은 곡진한 마음을 담은 채 다섯 가지 빛을 발하고, 설법회가 펼쳐지는 영취산에는 하늘에서 날린 꽃비가 살포시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